

‘12·3계엄’ 일주일여... “尹 퇴진” 확산속 계엄 트라우마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일주일여가 지났으나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충격과 공포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시·도민들은 현 정권의 퇴진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광주비상행동 ‘5·18광장집회 계속’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행동에 나선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출범식을 갖고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시국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기준 광주비상행동에 참여하는 광주·전남지역 단체는 총 113곳으로, 1차 집회가 열렸던 지난 4일보다 37곳이 늘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광주비상행동은 보다 체계적인 투쟁 활동을 위해 ▲전체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 ▲상황실 ▲고문단 ▲지도위원 등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또 윤 대통령 퇴진 이후에도 현존하는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단체명을 변경했다.

조직 정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4일 열린 ‘제6차 시민총회기대회’ 전까지 매일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성회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제6차 시민총회기대회

는 기존 5·18민주광장을 넘어 금남로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잇단 시국선언... ‘尹 퇴진’ 한목소리
‘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기독교협의회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표자회의가 10일 오후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윤 정권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날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성경의 잠언 6장 12-19절에 빗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설교한 장현권 전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며 “배우자 주변에 무속인이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현안을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비상행동, 명칭 변경·조직 정비 출범식... “집회 지속”

광주전남기독교協 시국기도 등도... “일상 돌려달라” 염원

이러 장 전 회장은 “80년 오월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는데, 이 같은 일을 다시 벌인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광주는 민주·평화·인권의 정신을 모아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 592명은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란행위에 대해 의회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14일 예정된 표결에 따라 향후 투쟁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전남 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언론인회도 성명을 통해 “반

민주적인 언론 검열과 권력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계엄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추진하던 중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며 “윤석열이

외면하고 범죄자를 감싸는 행위”라며 “자기 정당의安危만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2차 계엄불안” “일상 돌려달라” 염원
흔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시·도민들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입을 모은다.

4·5차 광기대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시민 김모(42)씨는 “12·3 비상계엄 후 언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에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 찬바람이 부는 광장에 나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게 더 편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집회참여자 오모(24)씨는 “2차 계엄은 없을 것이고, 발령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 차례 과오를 저지른 그들의 말을 누가 믿겠나”며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잠에서 깨게 된, 잘못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광장로나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월 단체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80년 5월을 절로 떠올랐다”며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기에 가볍게 쓰고 싶지 않지만, 많은 오월의 식구들이 광장하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에 정신적 피해”...국민 105명, 첫 손배 집단소송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공포”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추가 소송도

‘12·3 비상계엄’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첫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이날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

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자로 함께한다.

원고 수 105명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송인단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 ▲홍콩 교포 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로다. 승소할 경우 실비(인지·송달료)를 빼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1차 손배소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

다 105명씩 원고를 모으는 대로, 각 법원마다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로는 민법상 성년에 이른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함께할 수 있다. 2차 소송부터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이다.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는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가 모인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비상시국’ 중개인 전시회 연 남구의원 ‘눈총’

동료 의원 사발 투쟁과 대조 비판에 ‘경솔’ 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각기초원이 개인 전시회를 열어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김광수의원(무소속)은 전날 오후부터 남구청사1층 민원실 앞에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김 의원이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 등 13점이 전시됐다. 김 의원은 전시회 관련 안내 문자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동심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회 개최 취지나 일정 등을 구청에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청사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반 시민도 아닌 의원이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시회가 동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사발까지 불사한 날이었다는 대목에서 한 남구의원은 “모두가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의원은 사과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예정했던 전시회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